***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6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4호

우리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 보려는것은 상식밖의 추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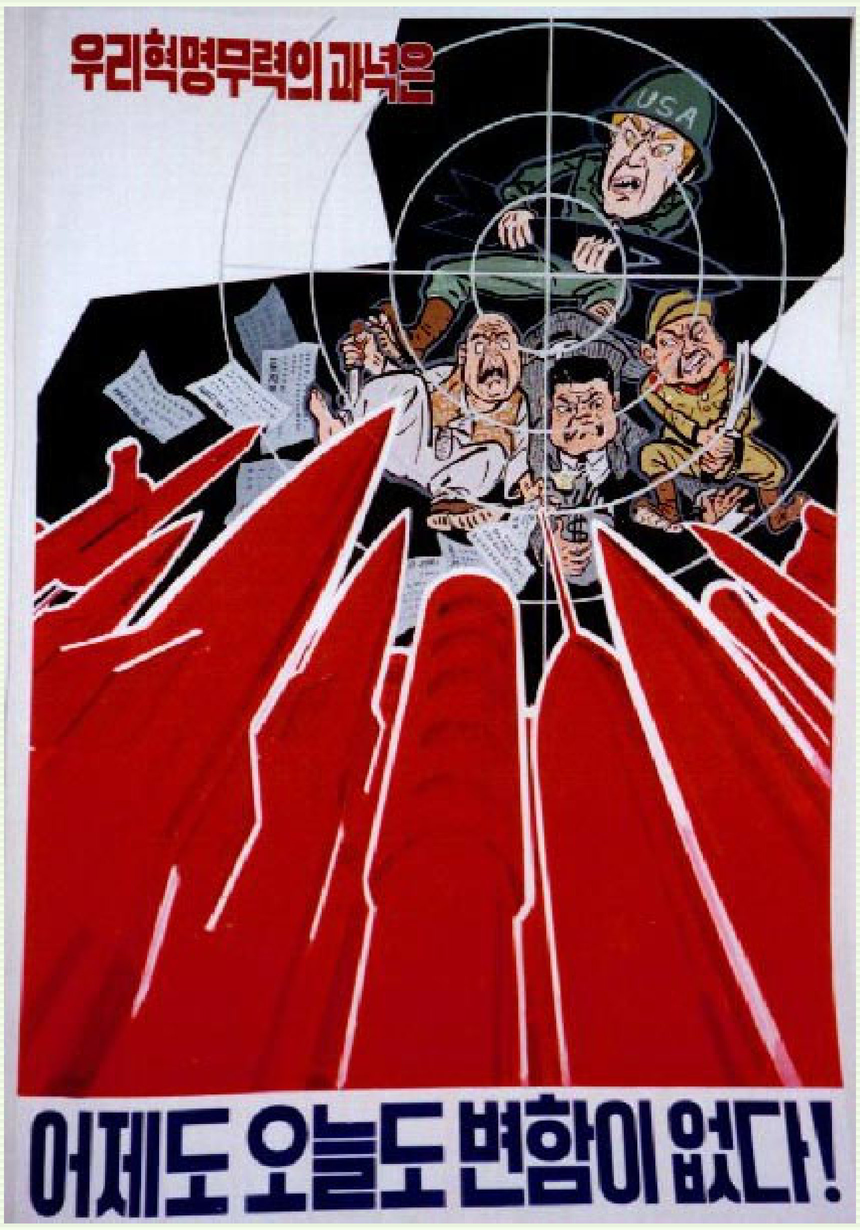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 3월 4일

지난 2월 25일 미국대통령 부쉬가 워싱톤에 있는 ≪미국의 소리방송≫본부에 나타나 그 무슨 ≪연설≫이라는것을 통해 존엄 높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또다시 ≪페쇄체제≫니 뭐니하고 함부로 중상해 나섰다. 우리의 정치체제를 련이어 걸고 드는 부쉬의 망발과 최근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제도≪변경≫에 대해서도 운운한 그의 폭언을 련관시켜 볼 때 여기에는 단순한 도발로써만 볼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인민대중을 분리시켜 놓고 미국식가치관과 ≪자유≫의식을 우리 사회에 주입시키는 한편 군사적압력을 가한다면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처럼 우리의 제도를 ≪변경≫시킬수 있으리라 타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방대한 무력을 동원시켜 연약한 정치세력에 불과했던 타리반을 붕괴시킨 미국은 오만하게도 자주적으로 나가는 모든 나라들을 미국주도의 신식민주의지배체제에 얽어맬 침략적대외정책구상을 국가정책으로 공식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호전적구상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부쉬와 미국의 대외정책담당자들은 저들이야말로 정치적 미숙아임을 스스로 드러 내 놓았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체제이다. 수령과 당, 대중이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우리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 보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 격의 상식밖의 추태이다.

부쉬와 미국의 대외정책담당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력과 초보적인 리성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할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헤덤비고 있다는데 부쉬행정부의 비극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운명이고 미래인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삶의 일차적인 요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이든 감히 최고수뇌부를 중상하는 자들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의 타격력은 방대하고 무자비하며 그것을 피할곳이란 이 행성에는 없다.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조선학생위원회 -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2일

조선학생위원회는 새 세기의 두 번째 봄을 맞으며 청춘의 활력에 넘쳐 개강을 시작하는 한총련의 백만학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언제나 한총련 그 이름을 부를때면 학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과 함께 통일애국의 투철한 자랑스러운 모습이 절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떠오르군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우들도 알다싶이 공화국에 대한 ≪악의 축≫ 망발로 세계를 들끓듯 했던 악의 화신 부쉬는 최근 남녘땅에 날아 들어 또다시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며 전쟁열에 미쳐 날뛰였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남녘의 분렬주의 호전세력들도 반북대결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중도반단되고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인 온 삼천리 강토가 불바다로 화할 준엄한 이 시각, 애국의 피, 민족의 피가 펄펄 끓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찌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추켜든 반미항전의 기발을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책동을 산산히 짓부셔 버림으로써 나라의 평화를 사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학문도, 참다운 애국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습니다.

조선학생위원회는 한총련 백만청춘들이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한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개강을 맞이한 남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논평
1 우리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 보려는것은 상식밖의 추태
1 ≪조선학생위원회≫ 남녘의 100만 청년학생들에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1)

세기와 더불어
4 3장 10절 철창속에서 (1)

칭송
6 ≪동지애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며 / 금강산처럼
6 2.16맞으며 여러 나라에서 도서와 시를 창작 발행

한국민족민주전선
7 봄철 임투와 노동자의 자세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24일
8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8 조국통일만이 살 길

조선중앙통신
9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선구자가 되자 - 사설 3월 4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0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 - 주체91, 3월 3일
11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한 사업 - 주체91, 3월 4일

아리랑뉴스

12 국방부는 보잉사의 대리인?
12 조선일보 올림픽 금메달
13 이북과 유럽, ≪악의 축≫ 반발로 급속 접근
13 미인권보고서와 북미관계 파장
13 럼즈펠드 미국방 방일, 방한 연기
14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
14 테러방지법은 일상적 계엄령
14 김근태고문 선거자금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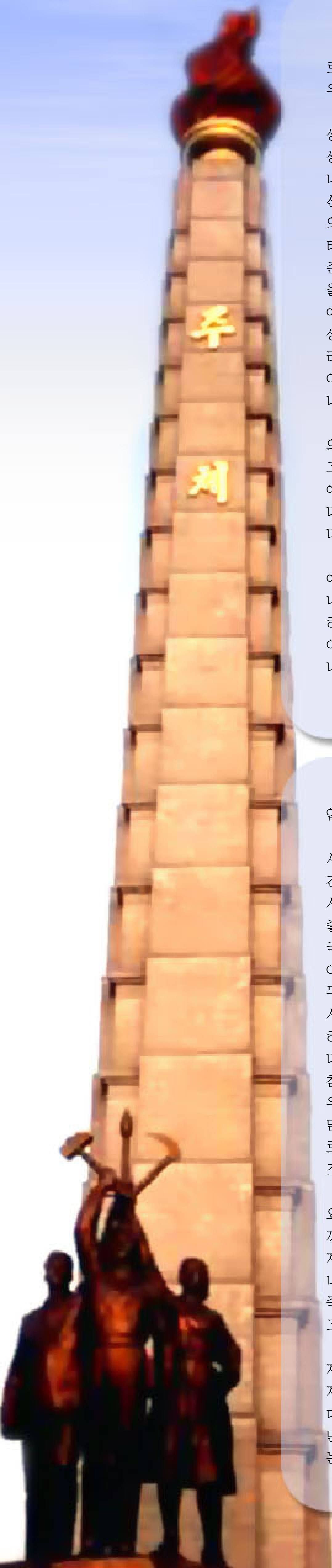
운동강좌
15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1)

광고
15 통일여명 15호

조국통일3대현장
16 민족공동체의 리익을 반영한 통일방안 (1)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1)

주체67(1978)년 11월 18일



나는 최덕신선생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을 만나고 보니 의산 최동오선생이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선생의 모습이 최동오선생을 꼭 닮았습니다. 내가 선생은 이번에 처음 만나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압니다. 나는 1926년 6월에 화성의숙에 입학하여 숙장이였던 최동오선생한테서 배웠습니다. 나는 최동오선생을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내가 최동오선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화전에 있을 때 선생의 집에 가서 식사도 몇끼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은 생활이 아주 검박하였고 인품이 너그러워 남에게 싫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남에게 해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동오선생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일할 때 자주 만나 옛일도 회고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으며 선생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돌봐주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금강산에도 몇번 갔다왔고 휴양소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최동오선생은 건강하였는데 1963년 9월에 뜻밖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동오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는데 통일도 되지 않고 하여 아마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동오선생은 4. 19인민봉기이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일어났을 때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동오선생에게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을 비롯한 출판물과 남조선정세자료들을 늘 보내주었으며 또 최동오선생은 우리에게 참고될만한 자료들과 의견들을 내놓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정희가 5. 16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았을 때 내가 최동오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에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고 물어보니 최동오선생은 그놈이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고 악질적인 반공분자이다, 이제는 조국통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이 박정희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데 대해 대단히 분격해하였으며 사실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최동오선생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박정희가 통일하려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놈이 더 으쓱해서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장군님께 말씀드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느해에 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기자단을 만나준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를 ≪토벌≫하러 다니던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토벌대≫에 있었지만 현재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취재하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나쁜 글을 쓰지 않고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일본사람들에게 자기가 그전에 ≪백두산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하였는데 이번에 장군님을 만나보니 정말 위대한 분이시더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에게 박정희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는 박정희를 쬐쬐한 놈이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였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보잘 것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권력을 틀어쥐고 파쑈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선생이 그밑에서 일하였지만 그때 형편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지난날의 일들을 다 씻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여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나라가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기로에 놓인 이때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며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갈라져 살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독일처럼 갈라질 조건도 없습니다.

지난해 독일사회통일당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선생이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내가 그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연설에서 독일은 강대국으로 남을 침략하려다가 패전한 전패국이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주변나라들은 두려워하며 좋아하지 않는다, 또 민주독일사람들자체가 독일이 분열되어있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일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고 패전국가도 아니며 우리 민족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을 벌여 자체로 독립을 쟁취한 민족으로서 둘로 갈라질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대국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는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자면 민족자주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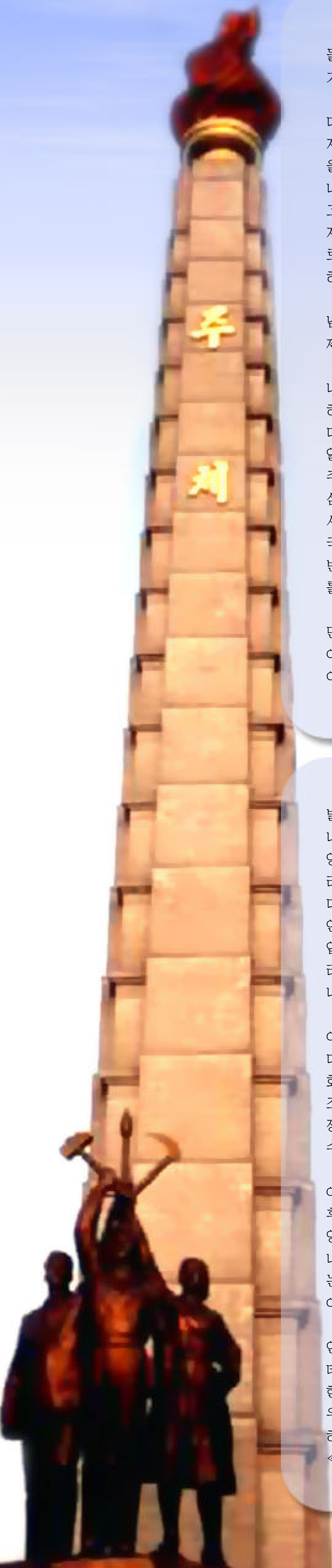
해방직후에 신의주에서 일부 학생들이 앞으로 북조선이 소련의 식민지로 될 것이라는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에 속아넘어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신의주에 내려가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나에게 해방된 조선은 어디로 갈 것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된 조선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민주주의도 아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소련식 민주주의도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형의 민주주의, 조선식 민주주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내가 소련사람들이 옆에 있는데서 우리는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연설하였으니 물론 일부 소련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 모인 군중들은 모두 신심을 얻었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는 김규식선생, 김구선생, 조소앙선생을 비롯하여 이름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참가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매워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우리가 이조 때와 같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남의 장단에 놀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배격하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도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여기에 와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에 가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에 대하여 잘 안다, 미국사람들에게는 남을 지배하려는 사상이 많다, 남조선에 나가 사람들이 남의 장단에 놀지 않도록 설교하겠다, 여기는 **김일성**장군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규식선생과 손을 맞잡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겠다는 것을 맹약하자고 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은 남조선에 나가 그대로 활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구선생도 그때 자기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보고 모든 것이 다 풀렸다, 장군님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는 힘껏 청년들을 일깨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

**사대주의,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나라가 처한 역사적, 자연지리적 환경은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들은 남조선에 나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대주의,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나라가 처한 역사적, 자연지리적 환경은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을 내세워야 하며 언제나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의 이익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민족이 둘로 갈라질 수 없으며 통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둘째로 치고 민족의 통일을 첫째로 삼습니다. 자기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를 해서는 무엇하며 자기 민족이 없는 ≪지상천국≫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할 때에도 언제나 민족문제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한나라안에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별의별 당들이 다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에도 여러 당들이 다같이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혁신정당인물들이 큰 도시의 시장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안에 여러가지 사상과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나라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맑스를 신봉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북과 남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 ≪중앙정보부≫부장이 평양에 들어왔댔는데 내가 새벽 3시경에 그와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북과 남은 불상용적인 두 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민족안에 두 극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의 자본가들과 한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매판자본가는 반대하지만 민족자본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연설한 것을 선생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을 때에도 민족통일전선노선을 내세웠고 해방후에 발표한 20개조 정강에서도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가지고 두 극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남조선측 대표도 그에 대하여 긍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국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며, 둘째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셋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이후락은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네 ≪대통령≫도 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냉수마시듯이 다 받아물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제2부수상을 대표로 남조선에 내보내면서 남조선측이 찬성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라고 공동성명문 초안까지 작성하여주었지만 박정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서 남조선통치배들은 갑자기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제기하여왔습니다. 아마 미국사람들의 승인을 받느라고 기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7. 4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남조선통치배들은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며 ≪반공법≫은 없앨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7. 4공동성명을 뒤집어놓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해에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갈데 대한 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6월 23일 오전에 발표되었는데 나는 인차 그날 오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연설에서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것, 북과 남이 연방제를 실시하여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엔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가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의 민족분열책동에 의하여 북남대화는 실제상 파탄되게 되였습니다. 내가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 보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북남대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북남대화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7. 4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들을 만나 담화할 때 나는 그들이 남북공동성명을 당장 실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북남경제합작이라도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네는 지금 오스트렐리아, 인도 같은 먼 나라에 가서 철광석을 사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북반부에 무진장한 철광석을 캐가라, 당신들은 노력을 대고 우리는 설비를 대어 철광석을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광부≫요, ≪간호원≫이요 하면서 수많은 인민들과 여성들을 서독과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팔아먹는데 그것은 민족적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남조선의 실업자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지금 남조선에서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수지기와를 들여다 초가집지붕을 바꾸어 잇는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자면 남조선농촌에서 관개공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관개공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관개공사경험이 많다,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가서 관개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당신들이 요구하면 우리의 기술과 설비로 남조선 농촌에 관개공사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하라, 겨울철에 명태떼가 밀려올 때는 몇백만톤씩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60만톤밖에 잡지 않는다,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구조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당신네 ≪대통령≫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 대표들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남조선당국자들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공동으로 금강산에 호텔이나 지어 경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을 금강산에 끌어들여 기생관광이나 시키자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너무 입이 쓰거워 우리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서 무엇을 바라며 이런 인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개인의 이익과 돈밖에 모르는 자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단결할 수도 없습니다. 민족적 양심이 없는 자들과는 마주 앉아야 의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을 것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같은 조선민족으로서 단결해나갈 것입니다.

선생이 여생을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며 미국에 돌아가서 재미교포들과 미국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정책과 민족자주적 입장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고 납득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입니다.

(내일 계속)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10. 철창속에서 (1)

≪길림바람≫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휩쓸게 되자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은 점차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년학생운동과 중동철도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으로 하여 우리에 대한 소문이 여러곳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적들은 길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탐군들을 박아넣고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해졌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게 되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길림시내에 들어와 박혀있던 종파분자들은 룡정, 반석, 돈화와 같은곳으로 달아나고 독립운동자들은 국적을 중국국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관내로 들어가거나 왕청문과 같은곳으로 피신해버리었다. 1929년 가을의 길림은 벌써 반일운동자들이 와글거리던 조선의 해외정치운동의 중심지가 아니였다.

이런 때 길림제5중학교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쓸데없이 떠들어댄 것이 실마리가 되어 우리 동무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방금 왕청문에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나도 반동군벌당국에 걸려들었다. 5중학교의 학생들이 육문중학교의 공청조직도 다 불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우리가 벌려온 투쟁내용과 길림시내에 거미줄처럼 늘여져있던 조직망을 들춰내고 그 배후세력을 알아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이 책을 읽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심문을 들이대는 형리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뻗대였다.

내가 손가락비트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 어느날 화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동오선생이 심문실 한쪽에 세워놓은 간막이뒤에서 나를 피뜩 내다보다가 사라졌다.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여서 처음에는 혹시 무슨 착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성의숙시절의 숙장 최동오선생이 틀림없었다. 적들이 화성의숙시절의 스승까지 심문실에 데려온 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지간히 깊이 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동오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중국말도 잘하고 외교사업에도 능하여 국민부의 외교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선생은 국민당반동군벌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주로 길림에 있으면서 청년학생들과도 일정하게 련계를 가지였다.

만일 그가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동군벌당국에 로출시키는 날에는 사건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수 있었다. 더구나 중동철도사건때 우리가 쏘련을 옹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도저히 무사할 수 없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과 조종하에 중국국민당 정부와 봉계군벌은 1920년대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장개석정부는 광주인민봉기가 실패로 돌아간후 광주주재 쏘련령사를 총살하고 쏘련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반쏘는 제국주의렬강들에게 아첨하여 그 보호와 지지를 받아보려는 장개석의 주패장이였다.

군벌들의 입에서는 ≪적색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자주 울려나왔다. 그들은 중국인민의 민족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반쏘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군벌들의 선전에 기만당한 대학생들과 청년인테리들까지도 ≪우랄산을 점령하고 바이깔호를 차지하자!≫, ≪바이깔호에서 말물을 먹이자!≫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폭언을 마구 해대면서 쏘련땅을 넘겨다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군벌은 반쏘도발의 첫 순서로 중동철도를 공격하였다. 중쏘량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지하고 리사회라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이 철도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선전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쏘련측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었다. 중동철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곧 국경을 넘어 세개 방향으로 쏘련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쏘련군대와 중국반동군벌군대사이에는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길림감옥

그때 풍용대학과 동북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 나섰다.

우리는 국민당정부와 반동군벌의 반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투쟁에 궐기시키고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옹호하여나섰다.

각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우리를 중화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돕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우리는 시내 여러곳에 군벌의 반쏘책동의 본질을 밝가놓는 삐라도 뿌리고 중국사람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벌려 군벌군대가 중동철도를 탈취하고 쏘련을 침공한 것은 10월혁명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에 물심량면의 원조를 준 쏘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밑천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국민당반동들과 군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쏘련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전을 듣고나서는 반쏘련침공의 위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데로 태도와 립장을 바꾸었다.

우리는 중국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쏘련을 공격하겠다고 날치는 풍용대학 학생들에게도 된타격을 주었다.

감옥망루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투쟁이였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수하였다.

중동철도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군벌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조중인민은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었다.

당시 국민당군벌은 쏘련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최동오선생이 왔다간 다음에도 심문자들은 나를 여전히 독서회사건의 주모자로만 취급하였다. 군벌당국은 최동오선생을 데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쏘련과 련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

아본것 같았다. 그러나 최동오선생이 나한테 해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후 길림감옥으로 넘어갔다. 길림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옆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건물이였다.

내가 갇혀있던 감방은 북쪽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칸이였다. 북향이어서 일년 내내 해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하얗게 돋아 녹을줄 몰랐다. 우리가 감옥으로 이송되였 때는 가을이였는데 감방안이 겨울처럼 찼다.

군벌당국은 죄수들을 다루는데서 심한 민족적 차별을 두었다. 간수들은 ≪조선놈≫이니, ≪조선망국노≫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무거운 쇠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조선학생들의 발목에 채웠다.

군벌당국은 식사조건과 감옥안의 보잘것없는 의료시설을 리용하는데서도 중국인정치범들과 차별을 두었다.

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련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또한 군벌당국과 싸워 출옥날자를 앞당기리라고 결심하였다.

옥중에서 투쟁을 벌이자니 외부와 련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간수들을 교양하여 우리의 동정자로 만들어야 했다.

간수를 쟁취하려는 나의 의도는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때 감옥당국에서는 감방들을 수리하면서 얼마동안 우리들을 잡범들과 같이 있게 하였다. 감옥당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어느날 나와 한감방에서 생활하던 중국인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부자집을 털다가 잡혀들어온 사람이였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폭하였다.

내가 잡범들의 방에 옮겨간 날 ≪깡틀≫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우리더러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으니 한턱 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다. 자기네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를 지키게 되어있으니 너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호통질을 하였다. 아주 감때사납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였다.

나는 그 죄수에게 며칠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 것은 어데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생활을 오래 한 당

감옥복도

신들이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오금을 박았다.

말문이 막힌 ≪깡틀≫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나를 쏘아 보기만 하였다.

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횡을 부리던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감방사람들은 모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 손정도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간수를 불러 감옥병원에서 약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였다.

행동이 거칠고 붙임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시부터 아니꼽게 보아오던 리가성을 가진 이 간수는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살붙이처럼 돌봐주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우리의 성의있는 간호로 앓던 죄수는 인차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후부터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생기였다.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괴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내앞에서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리간수는 자못 신기하게 생각하며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림감옥의 간수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은 사람이였다. 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은 리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과 그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간수가 된 사람이라고 통보해주었다. 나는 이모저모로 리간수를 료해하던 끝에 그를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례장감을 장만하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리간수가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을 발동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며칠후 리간수가 나를 찾아와 례장감을 장만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감옥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고 물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하자 그는 모를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겠는가,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적≫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열을 내여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리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곧이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후부터 리간수는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감방에 무슨 련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선히 들어주었다. 얼마후부터는 그를 통하여 외부와의 련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감옥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와졌다.

(내일 계속)

십자형감옥외경

일화

≪동지애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며

1992년 2월 16일,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축하하여 금수산의사당에서 연회를 차리시였다.

자신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일꾼들이 준비하려던 국가적인 행사와 경축연회를 다 막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부르신 연회에만은 참석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연회참가자들은 장군님께 만수축원의 축배 잔을 올린 데 이어 저마끔 일어나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으며 축하와 축복의 격정을 터뜨리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오랫동안 일해온 한 일꾼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그로 말하면 불치의 병으로 진단 받고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몇 달째 병치료를 받아왔으나 별로 차도가 없이 극한 점에 도달한 상태에 있는 일꾼이였다.

그가 이러한 자기의 신상을 내색하지 않고 어찌도 천연스레 타령을 잘 뽑았던지 좌중에서는 일시에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허나 그는 마음속으로 울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그의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 자리가 평범한 자기를 20년 세월 가까이에 두시고 높은 직무의 책임적인 일을 맡겨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키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삶의 은혜로운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마지막 자리이고 그이께 드리는 마지막 축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였다.

머지 않아 경애하는 장군님의 곁을 떠나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통분함을 안고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머금으며 그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였다.

시종 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득 큰 소리로 가만! 하시며 일어서시더니 그에게로 걸어 나오시어 팔을 꽉 부여잡으시였다.

그를 마주보시는 장군님의 안색에는 축하를 받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씹어 삼키는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한동안이나 자신의 심중을 억제하듯 말없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 결연한 어조로 찬선동무, 나와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장내에서는 박수소리가 터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고 아껴오시던 전사와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일수도 있는 ≪동지애의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저력있는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장군님의 눈가에도, 갈린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일꾼의 눈가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다.

생의 마지막 시각을 앞둔 일꾼의 팔을 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며 부르시는 ≪동지애의 노래≫에는 이 땅의 모든 전사들을 살아도 죽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동지로 품어 주시려는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의리가 비껴져 있었다.

송시

금강산처럼

내 이남에서 사니
말로만 들어오던 금강산이
아름다움의 극치인줄만 알았습니다
절경중의 절경인줄만 알았습니다

허나 내 오늘 내 눈으로
직접 금강산 그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알았습니다
가슴 뜨겁게 새겼습니다

구룡면 상팔사 거기 맞은편 돌바위에
정신이 번쩍들게 새겨진 글발
이 내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금강산은 조선의 기상입니다.
김 정 일 1981년 6월 17일≫

아!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시는 위인의 안광엔
금강산이 그저 경치 아름다운 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기상이었습니다
민족의 기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
하늘을 치받든 만이천봉우리 그 당당한 산악미는
신통히도 반만년역사로 천하를 굽어보는
내 민족의 우뚝 솟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치도 용이 승천하는 듯 장쾌하기 그지없는 구룡폭포는
강성대국을 향해 나래펼친 이북의 기상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내 겨레의 슬기와 세인의 갈망
**도 만가지 재주를 부리는가
물도 천가지 재롱을 뽐내는가

산천경계에도 어려있는 금강산,
마음의 산악으로 가슴에 안고
내 이제 금강산을 안고 서울로 가렵니다
김정일장군님 확인해주신 금강산, 조선의 기상을
내 마음의 산악으로 뜨겁게, 뜨겁게 새겨안고 가렵니다

아- 새 세기의 찬란한 통일들판에
금강산처럼 아름다우렵니다
금강산처럼 씩씩하렵니다
금강산처럼 당당하렵니다
아- 금강산! 조선의 명산이여!

흠모

2.16맞으며 여러 나라 인사들과 시인들이 많은 도서와 시를 창작 발행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로숙한 령도의 거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올해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2.16)을 맞으며 여러 나라 인사들과 시인들이 많은 도서와 시를 창작 발행한 데서 찾아 볼수 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는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총비서≫에서 **김정일**령도자의 강인담대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에서는 커다란 사변들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로 인류의 자주위업은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할것이라고 썼다.

수리아 통일사회주의자당 정치국위원인 박사 리야드 쑬레이만 아와드는 도서 ≪**김정일**령도자의 나라에서≫에서 조선을 방문하여 느낀 소감을 전하면서 **김정일**령도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레바논 근로자련맹 총서기 자헤르 알하티브는 도서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조선≫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봉쇄속에서도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세계정치가들은 조선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까시, 일조문화의 회대표 가메다 노보루는 자기들이 쓴 시집 ≪21세기의 태양찬가≫, 가사집 ≪태양을 우러러≫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적풍모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이외에도 로씨야, 네팔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시들이 창작발표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을 칭송하여 지난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작발표한 시들만도 450여편이나 된다.

봄철 임투와 노동자의 자세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4일~5일

봄철 임투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봄철 임투. 이 투쟁에서 노동대중의 자세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이번엔 ≪봄철 임투와 노동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자신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임금인상요구입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12.5%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2월 21일 한국노총에서는 올해 임금을 정액임금총액기준으로 12.3%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이같은 요구는 현시기 노동대중의 생활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매우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대중의 생활처지는 매우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한국노총은 노동자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4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월 354만70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자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표준생계비와 대비해볼때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50%선을 겨우 넘어서는정도입니다. 식품비, 주거비, **공과금, 교통통신비 등 4개 항목만의 지출비만을 봐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한 주요 4개 항목에 지출할 돈도 모자라는데 이에 자녀교육비, 병치료비 등 필요한 400여개 품목에 지출할 비용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겹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는 더욱더 한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작업장들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도 각종 연금, 수당, 산재보험, 월차, 생리휴가 등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생활처지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당국은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물리적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1300만 노동대중이 일치단결하여 생존권쟁취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동대중은 올해 임금인상투쟁을 힘있게 벌여 자신들이 제기한 요구조건을 기어이 관철해야 할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 모두가 이 투쟁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인상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며 이것을 그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대중이 단결해야합니다. 단결은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서로 서로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하나된 큰힘으로 이 투쟁에 임할때 승리를 이루어낼수가 있는 겁니다.

연대연합을 통한 단합으로 1300만 노동대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는 것은 이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별, 산별, 업종별, 또 작업장별로 연대를 통한 단합으로 이 운동에 1300만 노동대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할때 승리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1300만 노동대중은 다가온 봄철 임투에 주인된 자각으로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섬으로써 자기들의 요구를 기어이 관철해야 할겁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뜻과 힘을 하나로 지향시켜 큰 힘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요구, 임금인상요구를 기어이 관철시켜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4일

남북공동모임무산관련 논평 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논평을 냈습니다.

통일연대는 논평에서 민족공동행사 무산의 가장 주되는 책임과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사가 무산되게 된 근본원인은 우선 미국의 계획적인 민족대단결방해책동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우리 민족의 대단결운동을 저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부쉬의 대북적대시발언에 대한 반대기운이 전민족적으로 확대되자 미국은 이번 공동행사를 어떻게하나 무산시켜보려고 한나라당을 부추겨 원래 19일에 예정되었던 행사를 연기시키라는 지령을 주는 한편 이번 대표단에 통일연대가 제외되도록 공안세력을 발동시켜 맹렬한 공작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키는데 1차적인 관심을 두었으며 더욱이는 남측의 통일운동단체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남남갈등이 있는 것처럼 소동을 피웠다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이번 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 원인은 또한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책동에 편승한 반통일보수세력들의 분열자세때문이라면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열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논평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주교류사업이 원만히 보장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강행 비난

한미당국이 올해부터 연합전시지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종합해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한미당국이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오던 두가지 훈련을 통합해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기필코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호전광들이 벌이려는 이번 훈련의 규모와 내용만 봐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다. 한미호전광들은 이 훈련에 주한미군과 국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해서 1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군장비들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무력을 최전방으로 투입해 야외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북침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더욱이 이 훈련이 북을 압살하기 위한 부쉬패거리들의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루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북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미호전광들은 저들의 전쟁책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제가 지른 불길에 영영 타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재야인사 홍모씨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에 동참하고 있는 군호전집단의 어리석은 책동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호전집단은 미국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동조해나서는 것이 민족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뒤엎는 망동일뿐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타민족말살책동에 동조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고대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 군호전집단은 북침전쟁이 곧 이 땅의 우리 민중에게 불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방대한 병력과 첨단 군장비들이 대량투입된 가운데 협소한 영토에서 전개되게 될 전쟁이 남북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만회할수 없는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군호전집단은 이것을 명심하고 미국에 편승한 어리석은 북침전쟁기도를 당장 버려야한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별법제정 추진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708명의 친일행위자명단을 발표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은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이 마련중인 가칭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에는 진상규명위원회발표와 민간차원의 진상규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의원모임측은 시민단체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다음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모임소속 한나라당 서상섭의원은 2차 심사대상에서 누락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앞으로 친일행적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4일~5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된지 30돌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왔습니다.

1972년 7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중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을 힘차게 벌여올수 있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입장과 방도를 밝히고 있는 통일의 초석임으로 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통일운동에서 시종 철저히 수호해야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자주의 원칙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는 것은 이 원칙이 조국통일운동전반을 민족주체적인 입장에서 전개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근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발전과 번영의 담보입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존엄이 짓밟히고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때만이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지향에 걸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된 원인과 통일위업의 전제로부터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되었으며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하여 겪게 됐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뒤 자기의 세력권확장을 위해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외세는 결코 지금까지 우리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야망으로 우리 민족의 사회주의위업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이 땅에 사대매국세력을 반통일대결에로 부추겼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파괴하면서 이북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미제의 북침전쟁책동은 그 뚜렷한 실례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은 이러한 외세의 침략과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을 짓부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인 겁니다. 자주가 없이는 통일도 없습니다. 투철한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외세를 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할때만이 우리 민중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는 건 이 원칙이 민족의 요구와 사활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전복하는 방법으로 이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반세기전에 외세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전쟁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6.25의 전쟁의 위험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누구나 평화를 염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전적으로 배치됩니다.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조국통일을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과 파국적 운명을 가져오는 전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습니다.

연방제통일방안이 그 실현방도로 됩니다.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통일과정에 생길수 있는 의견상이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는 겁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는 것은 이 원칙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마련해주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불행을 가시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실현돼야합니다.

단결된 민족의 위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을 짓부수는 자주의 힘도 온 민족의 단결된 힘이며 침략과 전쟁세력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힘도 단결의 힘입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비결은 온 민족이 대단결의 이념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는 겁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단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심이 남달리 강하며 유구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 애국심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여 단결을 지향한다면 온 겨레가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얼마든지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온 민족이 민족이념,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 기치하에 단결하면 통일을 이룰수 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통일의 길에서 우리 민족이 철저히 견지해야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세상에 공포된지 30년이 되지만 조국통일3대원칙은 진리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그 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밝힌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한 겁니다. 또한 공동선언이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인 연방제통일에 대해 밝힌 것은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7천만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빛나고 있는 것도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오늘도 내일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통일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만이 살 길

김세찬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어언 반세기 이상이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비극중의 비극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느 민족구성원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통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조국통일이 이룩되어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부강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이 조국통일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엄과 영예는 고사하고 존재와 발전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적 자주권에 의해 보장되며 민족적 자주권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 존엄과 영예의 초석이다. 민족적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게 되면 노예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시대의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해 우리 민족은 뼈에 사무치게 새기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진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이 기나긴 민족분열사는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가져다 주었으며 단일민족으로서의 통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아 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우리 민족을 저들의 침략적 목적에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역대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해 왔으며 오늘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민족멸망의 위험성을 들씌우려 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역사적 과제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만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 조국은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부존자원으로 보나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가지고 있다. 분열은 나라의 부원과 겨레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데 통일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데로 돌려지고 있는 실태이다. 조국의 부존자원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에 이용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오직 외세뿐이다.

조국이 통일되면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민중들이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서도 단일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통일만 되면 명실공히 세계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될 것이다.

남북과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체험하면서 조국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고 무궁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남북이 합의하고 내외에 공포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역사의 이 진리로부터 출발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이정표이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핵인 자주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통일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선구자가 되자

조선중앙통신 -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4일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혁명대오속에는 우리 지식인들이 당당히 서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이 하늘 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지식인들의 기세는 매우 높다. 오늘 우리의 전체 지식인들의 심장마다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담력과 기질,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려는 충성의 맹세가 끓어 번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여 이 땅우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사상과 지식, 과학기술의 힘으로 건설되는 21세기의 강국이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 지게 될 강성대국에로의 지름길은 다름 아닌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개척되게 된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하여 건설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로 일떠서는 불패의 강국이다.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목표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우리 식으로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 나가는 강의하고 슬기로운 우리 당과 인민만이 내세우고 실현할수 있는 조국건설리상이다. 우리의 지식인들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더욱 분발하여 일떠설 때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 나게 될것이다.

지식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왔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 당과 같이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 넣고 지식인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운 당은 없다. 당의 크나큰 믿음이 있어 우리 지식인들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 사회주의대건설시기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 최근년간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눈 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될수 있은것은 지식인들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지식인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사상,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로써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에서 개척자,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우리 지식인들의 각오와 열의는 비상히 높다.

우리에게는 백두산천출위인의 슬하에서 자라나고 선군의 혁명적폭풍속에서 단련된 지식인대부대가 있다.

.....

지식인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적기수이다.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사상진지의 공고성에 달려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악랄해 지고 우리 혁명앞에 새로운 시대적과업이 나설 때마다 사상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적립장이다.

지금 오만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자면 지식인들의 붓대가 위력해야 한다.

선군사상은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이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을 깊이 심어 주어 장군님과 사상과 뜻, 운명과 미래를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사명은 없다. 총대가 굳건하고 사상진지가 억년보루일 때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백배해 질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활력 있고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칠것이다.

지식인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전초병이다.

우리의 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의 큰 걸음을 내짚은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가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이자 경제력이고 국력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전도, 경제강국건설의 미래가 지식인들에게 달려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먼 앞날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 진취적이며 혁명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분발하여 떨쳐 나설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지식인들은 온 나라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는 선군시대 새 문화창조의 선구자들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각이한 년대기마다 혁명적인 문학예술활동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있은것도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시대를 선도해 온 지식인들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전진하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식인들이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할 때이다. 지식인들이 혁명의 붓대로 천만군민에게 힘이 되고 투쟁과 삶의 길동무로 되는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릴 때 온 나라에 드높은 전투적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될것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뜻 깊은 명절들이 겹친 올해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전면적개화기를 안아 오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지이며 열망이다. 모든 지식인들은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오늘의 장엄한 총 진군에서 시대의 기수, 선봉투사가 될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지식인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을 가장 존엄 높고 위력한 세계제일의 강국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손길아래 이룩되고 있는 창조와 변혁의 거창한 현실을 통하여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령도실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있다.

신념이 확고하면 천리도 지척이다. 모든 지식인들은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지식인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높은 자부심,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일편단심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지식인들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의 제일옹호자, 선전자, 결사관철투사가 되여야 한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다시한번 높이 떨치겠다는 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애국의 열정으로 끓는 심장이 없이는 원대한 포부도 내세울수 없고 이미 세운 목표도 달성할수 없다. 지식이나 재능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모든 지식인들은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마땅히 세계를 압도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려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 하나를 설계하고 창조하여도 세계를 내려다 보며 해나가는 담대한 배짱,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뚫고 나가는 강의한 의지, 이것이 우리 지식인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질이다. 모든 지식인들은 발명을 해도 세계패권을 쥐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될 원대한 포부를 지녀야 하며 공장을 건설해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의 노래를 창작하여도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정신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흘러 넘치는 명작을 내놓아야 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실력이 없으면 ≪낚시군≫이 된다. 지식인들은 실력전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발전추세에 민감하며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지식인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해 나가야 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는 우리 지식인들이 자신을 시대가 바라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오늘 수령의 기억속에 영생하고 조국과 인민이 잊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누구나 례외없이 혁명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굳히고 혁명적으로 단련된 시대의 기수들이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오늘의 거창한 현실은 지식인들의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꽃 피울수 있는 활무대이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 나가는 사상단련의 학교이다. 모든 지식인들은 현실로 들어 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혁명실천속에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종자를 골라 잡아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자고 해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자고 해도 현실로 깊이 들어 가야 한다. 지식인들은 늘 생산현장과 생산자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강의한 의지와 전투적기백을 따라 배워야 한다.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 지식인들속에서 현실체험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인재를 내세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지식인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식인들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이다. 지식인들의 운명이자 강성대국의 미래이며 조국번영의 근본담보이다.

당조직들은 지식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시대적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식인들이 창조한 좋은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고 제때에 현실에 받아 들여 실지 은이 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어야 한다. 눈앞의 성과만 바라지 말고 10년, 100년 앞날을 내다보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고 대담하게 투자도 하고 근기 있게 밀어주어야 한다. 지식인들이 자기 맡은 일에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풀어 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지식인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모든 지식인들은 백두의 천출위인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강성대국건설에 자기의 모든 힘과 열정,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쳐 나가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9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3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영도하시면서 독창적인 선군정치사상을 명시하신데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례 없이 강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워 준엄한 난국을 헤쳐 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앞장에 내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 하려는 것은 나의 철석의 의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 앞에는 생사존망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며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특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은 민족대 국상 이후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미제는 우리와 제네바조미회담 탁에 마주앉아 있으면서도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책동을 공중과 바다, 육지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었습니다. 난국은 제국주의 반동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강화된 거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에서 봉쇄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체 85(1996)년 5월경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5월의 위기설≫까지 내돌리며 각종 무역제재 조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비최혜국 및 적국관세지원명단에 올려놓고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 반동들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은 가장 높은 기본 세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체의 상품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려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말려버리려는 것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경제 봉쇄속에서 대국상 후 몇해째 계속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까지 입게 되였습니다. 혹심한 식량난, 열룡한 동력난이 겹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 주체의 혁명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우리 혁명 앞에 조선된 준엄한 난국을 승리적으로 헤쳐 나가시였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 하시였는가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인 주체 83(1994)년 7월 1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여 조선인민군 창건 52돐에 즈음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속하시어

> **≪총정치국에서는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영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으로 인민군대를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교양사상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 참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기대, 혁명 앞에 지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가 천만금의 무게로 실려있는 강령적 가르치심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숭엄한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에게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당을 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보위하는데서 성세가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에는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 기둥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대오의 앞장에 세우시려는 선군정치의 의지가 역력히 어려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익측도 후방도 없이 단신으로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들고 세계 제국주의강적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려야하는 정세하에서 인민군대를 믿고 인민군대를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워 겹싸인 준엄한 난국을 맞받아 뚫고 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85(1996)년 12월 24일,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앞장에 내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은 자신의 철석의 의지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고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강성의 노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고 노동계급부터 불러일으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 지금은 인민군대에서 자력갱생의 본보기도 나오고 혁명의 법칙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데서 기둥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내가 이미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강해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당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승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믿음과 정력적인 영도는 그대로 전군의 심장을 끓게 하고 힘과 용맹, 슬기와 지혜를 무한대로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86(1997)년 3월 3일에는 자신께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때에 공장이나 농촌을 현지지도 하지 않고 인민군 부대들에 자주 나가는가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시며 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당과 국가가 있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자면 인민군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당과 국가가 있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굳건한 조건에서 조국의 안전만 수호된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현시기 보다 절박한 것은 원쑤들을 침략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나간 주체 87(1998)년 5월 4일, 적들의 계속되는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보위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든 것도 인민군대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이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현실 전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노동계급의 전위적, 선봉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도도 강력한 군사력의 뒤받침에 있다는 결론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근거 밑에 선군후로의 원칙을 정립하시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셨던 것입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믿고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발전 시키실 큰 뜻을 안으시고 주체 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중대로부터 시작하여 군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85(1996)년, 한해동안만 해도 2만5천리를 걸으시여 군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고 1997년 한해동안에는 서해안 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한부대만도 다섯차례나 찾으시였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믿음과 정력적인 영도는 그대로 전군의 심장을 끓게 하고 힘과 용맹, 슬기와 지혜를 무한대로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적들은 ≪지금 북조선의 모든 양상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군제일중심의 특이한 공산주의강경정치로 펼쳐지고 있다. 군대는 이나라 사회주의정치 실체를 고수하는 유일한 주력군으로 되고 있을 뿐아니라 북조선이 처한 모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말 그대로 최고사령관의 돌격대,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이런 제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0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4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요구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시고 선군후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대가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단매에 요정내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낼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아래 인민군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모든 것이 사회로 끊임없이 흘러들어 온 사회에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인민군대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온 사회가 그것을 따라배워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기둥입니다. 인민군대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끊임없이 혁명적 영향을 주어 인민군장병들 속에서 발휘되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모든 군인, 모든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3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일꾼들과 당원들과 군사들이 다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요,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사상적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주체 86(1997)년 6월 10일, 이 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그것을 따라배울데 대한 역사적인 발기를 하신 한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1년전 일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온 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여기에 현난국을 타개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가 있다고 다시금 일깨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 87(1998)년 1월 1일에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이야말로 내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해서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당의 노선과 방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꾼들은 오늘의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우고 더 높이 발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주체 87(1998)년 새해 벽두부터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1월 중순 멀리 북변의 자강땅을 찾으시여 도안의 여러 분야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 과정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려는 도안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자강도에 와서 노동계급이 당의 믿음을 신념으로 관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자강도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매우 좋다고, 큰 힘을 얻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발휘한 이 고귀한 투쟁정신,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들끓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강도 노동계급과 인민들속에서 창조된 강계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며 강계의 정신이 일반화되는 나날은 곧 인민들속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더 높이 발양되는 나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힘찬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던 그 해 3월 29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창조집단이 형상한 경희극 ≪편지≫를 보아 주셨습니다. 경희극 ≪편지≫는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영농전투에 떨쳐나섰던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 투쟁모습을 펼쳐 보이면서 군대와 인민이 단합하여 당 앞에 다진 알곡생산의 높은 높이를 기어이 점령한 크나큰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편지를 올리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 마는 인민군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인민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헌신적 복무정신을 실감있게 보여주면서 군민일치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나서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라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를 본보기로 우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자는 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나서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라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를 본보기로 우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자는 것이 자신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일꾼들의 가슴은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튼튼히 다지시려는 장군님의 크나큰 뜻이 안겨와 격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사회의 밑뿌리, 사회정치적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 해도 붕괴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뿌리가 튼튼한 낙락장송만이 모진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사시장철 푸르싱싱한 잎새를 피어올릴 수 있듯이 사회의 밑뿌리, 사회정치적 지반이 튼튼한 나라만이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조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수령의 명령, 지시 결사관철의 정신이 전 인민적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그 어느때 보다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모든 분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방부는 보잉사의 대리인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미 보잉사를 편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자통협, 사회당, 전국연합, 전노련, 천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국방부 외압규탄, F-15K 도입 반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당 원용수 대표는 취지설명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1월 F-15K에 유리한 2단계 평가방안을 제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편법으로 F-15K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국방부의 대미 굴종적 자세와 F-15K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으로 전형적인 율곡비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국방부가 부시정권의 압력으로 F-15K 선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국방부가 F-15K 도입명분으로 한미연합작전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영성, 대북 종심 타격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추종적 자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주최측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국방부장관 사퇴 △평가기준을 변경한 국방부 관계자 처벌 △F-X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답이 없자 국방부 민원실에 요구사항을 접수시켰다.

국방부가 4조 2천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미 보잉사의 F-15K를편들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1월 초 국방부가 제시한 ≪2단계 평가방안≫과 최근 국방부가 기술이전 항목 중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에게도 60점을 주도록 배점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2단계 평가방안≫은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에 대한 가중치는 최소화하는 반면 평가기준에 한미연합작전 등을 새롭게 추가한 것을 말하며, 배점방식을 변경한 사실은 최근 국방부가 평가기관에 공문을 보낸 사실에서 새롭게 알려졌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국민의 혈세로 고물에 지나지 않는 F-15K를 도입하는 것은 국방부가 보잉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될 9일까지 매일 국방부 앞 1인시위와 집회, 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05

조선일보 올림픽 금메달

조선일보가 ≪동개(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조선일보의 창간 82주년을 맞아,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상임대표 김동민, 문규현, 오종렬, 홍근수)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등은 5일 조선일보사옆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대변 · 반민족행위에 앞장선 신문≫으로 조선일보에 ≪금메달≫을 수여했다. 은메달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는≫ 부시에게, 동메달은 동계올림픽에서 헐리웃 액션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안톤 오노에게 돌아갔다.

≪조선일보,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

이날 집회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상임대표 김동민, 문규현, 오종렬, 홍근수), 민언련(이사장 성유보), 통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창간 당시부터 조선일보가 친일신문은 아니었다≫며 ≪30년대 방씨일가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부터 조선일보는 친일파로 전락했고, 해방후 미군이 진주한 뒤에는 미국의 이해를 완벽히 대변하는 주구지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최근 부시 방한과 동계올림픽, 친일파 명단 공개 등 최근 일련 의 조선일보 행태를 볼 때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한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에 대해 비판을 해왔지만, 최근 반민족 · 반평화 행각으로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학생을 대표해 발언을 한 서울대학교 조선일보반대모임의 김형원씨는 ≪경성제국대학이 해방후 그대로 서울대가 된 것처럼,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로 창간된 조선일보가 자신의 친일행각에 대한 반성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대학생들도 조선일보의 민족배반행위가 계속되는 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동계올림픽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김동성 선수의 태극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과 관련, 규탄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임종일 집행위원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인터넷 싸이트에 맥도널드, KFC, 파파이스 등 미국상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명단에는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줬다≫며, ≪초등학생들도 조선일보의 친미행각에 대해 다 알고 있을 만큼, 조선일보의 반민족성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대학생 모임은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실격처리된 것을 풍자해 조선일보와 부시, 안톤 오노에 각각 금은동메달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연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용인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05

이북과 유럽, ≪악의 축≫ 반발로 급속 접근

리광근 북한 무역상 4일부터 유럽 순방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북과 유럽연합(EU)이 급속히 가까와지고 있다.

이북과 유럽연합의 이같은 유착은 부시미 정권의 ≪일방주의적 패권노선≫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북 유럽방문, 패튼 대대적 환영

리광근 이북 무역상이 이끄는 이북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주 예정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에 이북 경제사절단은 브뤼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2일과 3일 유럽이사회 의장인 괴란 페르손 스웨덴총리,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집행위원, 하비에르 솔라나 공동외교안보최고대표부 대표가 이북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데 따른 답방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이북을 방문했던 유럽연합 대표단은 김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대화의 지속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에 페르손 스웨덴총리는 3일 서울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간 대화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유럽 대표단을 맞은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재건을 위해 유럽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리광근 무역상이 이끄는 이북경제사절단의 이번 유럽방문은 이같은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북 경제사절단은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유럽연합 관리들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 관계자들과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집행위원은 이번 이북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봄 스톡홀름 유럽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이북의 평화와 안보, 자유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주에 브뤼셀과 평양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 유럽연한은 이미 이북에 가장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인권에 대한 대화도 해오고 있다. 나는 이북이 보다 번영적 미래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 미국 독주를 용납 못하겠다

패튼의 이같은 환영성명은 외교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개국가 경제사절단의 방문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의 환영성명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특히 패튼이 얼마 전까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강력비판하는 노선을 견지했다는 대목과 연관지어, 이번 성명에 내포된 외교적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집행위원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 유럽연합내 최고 동아시아전문가이자 유럽연합의 국무장관격인 패튼은 지난달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나오자 지난달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성토하고 나섰다.

패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미국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부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과신은 군사적 발휘가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토대이며, 미국은 자기자신밖에 믿을 게 없으며, 동맹국들은 선택적으로 유용할 뿐이라는 위험한 본능을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친구는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다≫며 ≪미국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북의 유럽방문은 ≪정치게임≫

패튼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한 데에는 부시가 ≪악의 축≫ 발언으로 이라크,이란 외에 이북까지 걸고넘어간 대목과 무관치 않다는 데 당시 국제외교가의 분석이었다. 실제로 패튼의 발언이 나온 뒤 미국정부는 ≪유럽과 이북에 대해선 토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신의 실책을 일부 시인하며 한걸음 뒤로 빠지기도 했다.

외교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이북 경제사절단의 유럽방문은 ≪악의 축≫ 발언 이후 유럽연합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주의 노선에 대한 ≪정치적 답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이북이 매파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신, 유럽연합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매파 정책의 국제적 고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은 이래저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3/05

미인권보고서와 북미관계 파장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북을 인권상황 ≪열악≫(poor)국가로 평가함으로써 북미관계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북 정권과 주민 분리 대응 및 대화재개 방침 천명에 대해 이북측이 예상보다 강력하게 반발, 미국측도 파장이 다소 진정된뒤 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당분간 북미경색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비록 종전처럼 ≪악의 축≫(axis of evil)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북 당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을 적시하고 종교의 자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북을 폭넓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이북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권리가 없고 처형과 실종 보고가 있었다. 주민들은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많은 주민들은 정치범으로 수감됐고 감옥상황은 가혹하다. 이북지도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특히 개인권리를 적법하지 않고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북을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등과 함께 ≪종교탄압 특별 관심대상국≫으로 지목, 사실상 최악의 인권실태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이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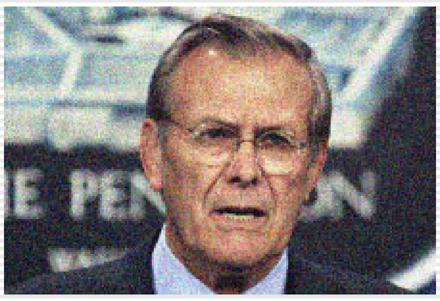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인권보고서를 둘러싸고 이북이 미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략≫ 혹은 ≪내정간섭≫ 등이라고 반발하며 설전(舌戰)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북미간 대화답보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5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불거진 이북측의 반발이 인권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더욱 강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로서는 북측이 ≪장고≫(長考)를 끝내고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 대량살상무기(WMD),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예년에 비해 더욱 강도높게 이북을 비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북과의 향후 대화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분석에 따라 북미관계의 향방을 비관적으로만 점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권경복기자
연합뉴스 2002/03/05

럼즈펠드 미 국방 방일, 방한 연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번 달 하순으로 예정돼 있던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연기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미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순방 연기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미군과 알-카에다의 전투로 미군 9명이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미 국방부는 현지 전투 상황을 지켜본 후 럼즈펠드 장관의 순방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나 방문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20일 일본과 한국을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럼즈펠드 장관이 3월 하순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 작업을 벌여 왔다.

연합뉴스 2002/03/05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미국은 무엇인가. 새 천년 첫 해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나왔는데도 부시 정권의 악랄한 대북 적대시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요한 개입·간섭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한 그간의 정세를 돌이켜 볼 때, 수없이 들어온 위의 물음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통일의 최대 장애물

미국은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한 장본인이자 6·25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엄청난 양민학살을 저지른 당사자이다. 전쟁은 지금도 휴전이라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기에 미국은 3만 7천여명의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키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예속 독재정권을 내세워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억압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기만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직후에 ≪핵무기 개발 의혹≫을 들씌워 ≪대북 선제공격≫을 공언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일거에 긴장시킨 것이 바로 미국이었으며, 지금도 노골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6·15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이행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인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의 분단역사는 미국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북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매도하여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는 부시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종일관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미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북의 정권과 민중을 이간시켜 그 체제를 어떻게 하나 와해시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질서에 반대하는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집요하게 압살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말했으나, 핵사찰을 받으라느니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온갖 수용키 어려운 조건들을 달았다. 이렇게 북을 ≪악의 축≫이라 몰아세우며 위협하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는 자의 자세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차례 이북 주민들에게 ≪동정≫을 표시했으며 그들을 돕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 그가 이북 주민들을 걱정하고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북에 대한 경제제재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의 미사일문제 등을 진심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북의 당국과 주민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감(이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가하고 있다)을 풀어주는 포괄적 대안을 가지고 성실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이와 같은 위선적인 자세에 대해 2월 22일, 북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고 있는 그런 대화는 필요 없다≫고 거절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전국에 확산되는 반미의 불길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2월 18일, 한총련 학생들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하는 등 전국에서 방한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시위와 기자회견들이 잇따랐다. 방한중인 20일에도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 600여개 단체 회원 5천여명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반도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며 미국은 이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려는 부시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어느 시민의 경고와 항의에 부시 대통령은 귀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이한한 그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력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한반도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타오르는 반미의 목소리와 불길을 더 높여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그래야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한라산기자
민족시보 제968호 (2002/03/01)

테러방지법은 일상적 계엄령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오는 12일께 통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 우려에 빨간등이 켜졌다. 국정원은 9·11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 및 절차규정 등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고 현행법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경고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이에 4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를 내고 ≪테러방지법안은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대국민감시체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의견서에는 테러방지법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와 대책기구, 군병력의 동원, 테러범죄 미신고죄 등을 분석하고 이 법안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대국민 감시체제의 확립≫이라며 국정원이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테러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추되어가고 있는 국정원의 입지강화를 노리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강력한 국민통제수단의 창출≫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우고 주장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안과 민변 분석결과.

◇모호한 테러의 정의

제2조 (정의)-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의견서-테러의 개념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 국가안보, 외교관계, 사회적 불안 등 불확정한 법개념을 마구 사용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연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

제4조(국가테러대책회의)-1,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대책회의)를 둔다

2.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된다.

제5조(대테러센터)-1.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3. 대테러센터의 조직은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의견서-대테러대책의 일상적인 책임기구가 국정원이 주도권이 되어 상정되어 있다. 또한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 16조에서 국정원 내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군병력 동원은 일상적 계엄령?

제15조(군병력 등의 지원)-1. 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3항생략)

의견서-우리 헌법은 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예방을 위한 군병력의 동원은 위헌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동원된 군병력은 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계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테러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군과 경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계엄 선언없는 계엄상황의 상시화마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이밖에 테러단체구성죄, 테러범죄 미신고죄 및 허위신고죄 등은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05

김근태고문 선거자금공개

김근태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최근의 정치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깨끗한 선거에 대한 실천 없이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정치풍토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셋째, 국민경선에서 조차 막대한 경선 자금이 소요될 패거리·줄 세우기 조직 동원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면서 자신의 경선 자금을 공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원은 자신의 경선 자금 공개를 통해 지난 선거자금에서 사용된 선거자금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비해 적다는 것과 국민경선이 패거리, 줄 세우기, 막대한 선거자금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면서 ≪나의 고백은 한 정치인이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며,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다짐입니다.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과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고뇌의 충정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1)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59호)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프랑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어있는 학생자치회와 류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같은 비합법적 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였다.

. . .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고 격문을 붙이였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삼시간에 수천명의 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된 프랑카드와 ≪타도 일제≫, ≪타도 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개문밖에 있는 성의회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수백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군경들과 맞다든 대렬은 구호만 웨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렬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로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었다. 대렬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겯고 군경들의 총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성의회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령사관이 자리잡고 있은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령사관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였다. 일본령사관앞에서 반일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 . .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상품배척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중은 일본인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었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투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탄압해나서는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립장에만 서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이였으나 길림독군서의 회유무마책으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해나선 것이였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학생들이 자기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단결의 시위≫, ≪세기와 더불어≫ 제 1권)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에 관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명투쟁의 조직형식과 수법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정확히 선택하고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확한 투쟁 형태와 방법이 없이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옳은 투쟁형태와 방법이 없으면 비록 투쟁목표를 정확히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옳은 투쟁 형태와 방법이 없었던 탓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지만 실패한 쓰라린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은 주체적 혁명역량을 꾸리는 것과 함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변화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것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

광고

통일여명

3월 (15호)

≪**백두장군**≫

불멸회고
독립만세의 메아리

불후노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에 대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교시지적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천하명언
천출명장
통일구성
정치원로
예술거장
최근동정
풍모일화
반향흠모

정론수필
혁명을 끝까지 하리라
우리는 노래로 신념을 지켰다

송가송시

≪**주요문헌**≫
김정일총비서께 드리는 축하문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한민전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백두청년**≫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주체의 청년운동의 강화발전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

≪**이론실천**≫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반도정세변화의 전망
민주노동당의 시급한 전략문제에 관하여

≪**화제의 초점**≫
위인의 거룩한 자국
한민전 평양대표부 기자회견
≪통일아리랑≫에 대한 각계의 반향
들끓는 반미감정, 미국이 더 싫어졌다.

≪**집중조명**≫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벌어진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도 주객관적 정세 즉 주체적 요인의 성숙정도와 객관적 요인의 성숙정도에 맞게 선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우선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선택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추진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처음부터 모든 투쟁형태와 방법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활동방법은 그들의 창조적 능력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창조적 능력에 맞는 투쟁방법으로 활동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활동방법은 결코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초월할 수 없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에 맞지 않는 투쟁 형태와 방법은 그들에게 접수될 수 없으며 그것을 실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투쟁 형태와 방법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치적 각성이 높지 못한 대중에게 처음부터 정치투쟁이나 폭력투쟁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을뿐 아니라 무모한 희생만을 내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에 맞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조직화수준에 맞아야 한다. 인민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은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면 될수록 높은 형태의 투쟁을 할 수 있다. 만일 인민대중의 조직화수준이 높지 못한 조건에서 고도의 조직성을 요구하는 무장투쟁 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그러한 무장투쟁은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인민대중의 의식화수준과 조직화수준에 따라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으로, 비폭력투쟁으로부터 조직적인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반드시 혁명의 주체적 역량인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선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들을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함으로써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타고난 혁명가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혁명실천의 불길 속에서 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을 처음부터 높은 형태의 투쟁을 통하여 단련시킬 수 없다. 만약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높은 형태의 투쟁에 인입한다면 그들을 체계적으로 단련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서 물러나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자면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우선 낮은 형태의 투쟁에 인입하여 단련하면서 점차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혁명적으로 단련할 수 있으며 혁명투쟁 자체도 우여곡절이 없이 추진시켜나갈 수 있다.≫(혁명투쟁 형태, 방법과 그 배합, 주체사상총서 제 4권)

≪변혁목표를 변화발전되는 형식에 조응시켜 나가려면 조성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첫째, 전략적 견지에서 설정된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며 둘째, 목표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선후차적 관계를 전술적으로 변화시키며 신축성있게 교체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현실에 조응시켜 나가려면 우선 변혁의 기본 전략적 목표들을 조성된 정세적 요구에 맞게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현실은 언제나 구체성을 띤다. 그런데 변혁의 전략적목표들은 변혁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규정한 목표들인 만큼 그것이 민중의 의식화정도와 조성된 정세적요구에 맞게 구체화될 때 현실성과 실천력을 가지게 된다. 미제가 주타격목표라 하여 그것을 그대로 투쟁목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구체화하여 미군철수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독재지원반대와 농축산물수입개방 반대라고 하는 실천적현안문제로 제기하는 등 당면에 실현해야 할 투쟁사안들을 예리하게 포착해 쟁점화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목표를 현실에 조응시켜 가려면 또한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의 위치와 실현속도를 전술적으로 능숙하게 변화시키면서 변혁운동의 모든 목표들을 신축성있게 들고 나아가야 한다.

변혁운동의 정세는 고정불변하지 않다. 변혁투쟁이 벌어지는 주객관적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이에 따라 변혁운동의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의 중요성과 선후차 문제도 일정 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혁운동의 활동가들과 운동권의 지도핵심들은 정세판단의 때를 놓침이 없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무엇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투쟁목표의 제 요소의 위상문제와 어떤 목표를 먼저 점령하고 이어서 다음 목표로 무엇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선후차성을 전술적으로 능동자재하게 선택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이같이 변혁운동의 모든 목표들을 신축성있게 들고 나갈 때 변혁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며 대중은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변혁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투쟁과정에는 정세가 유리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급변할 수도 있다. 투쟁이 일단 불붙기 시작하여 번져가면 그에 따라 목표를 제때에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가야 한다.

. . .

말이 되었던 기회에 우리는 변혁운동실천에서 투쟁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중핵적 요건인 민중의 사상적 각오 정도와 조직화, 전력화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덮어놓고 큰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동원하려는 주관주의적 편향도 없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대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집되고, 전력적으로 준비된 정도만큼 투쟁에서 적극적이고 창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주관주의적으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호소한다고 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일부 운동권의 대중동원능력이 변혁운동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적지 않은 경우에 투쟁이 전위주의적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도 중요하게는 대중의 의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대로부터 투쟁목표를 선각자들의 의식수준과 각오정도만을 생각하고 제시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변혁투쟁을 벌여나가는 데서 반드시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해로운 편향이 아닐 수 없다.≫(조성된 정세의 요청에 맞게 전술목표를 능숙하고 신축성있게 제시해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공동체의 리익을 반영한 통일방안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의미 -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새로운 련방국가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 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데 대한 방안이다. 이것은 철두철미 민족대단결을 근본전제로 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한 통일방안인 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 제시된 통일방도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리해도 침해하지 않고 통일국가를 세우는 길을 밝힌데 있다. 구체적으로 련방정부의 구성과 기능, 국호 문제 등 련방형성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통일이후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이 북과 남 어느쪽의 리해도 침해하지 않게 되어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을 망라하여 구성하며 여기에서는 전민족의 단결과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며 남북에 있는 사회체제와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김으로써 일방이 타방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또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체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정부들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하며 발전할 자유를 가지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리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련방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도 각 계급, 계층, 당파들의 리익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며 온 민족의 리익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련방국가의 국호문제에서도 북과 남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제 조선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려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이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일 뿐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이 마땅히 향유해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내일 계속)